

# 동부하수처리장 ‘동상이몽’

### 지난 21일 간담회... 오영훈 지사 “주민 목소리 경청” 월정 마을회 “증설공사 강행 마음 먹고 방문해 유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월정리 마을회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영훈 지사 면담에 대한 월정리 마을회 입장문’을 통해 “면담 이후 제주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고 월정리민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면담 자리에서 나온 주민들의 항의나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 등 주민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고 제주도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21일 발표한 ‘오영훈 지사, 월정리 마을 현장소통... 주

민 목소리 경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주민 고통이 커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도청 책임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원인자 부담 원칙 바깥 환경정책 추진 ▷지역주민 피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 ▷삼양·화북지역 하수와 제주자연순환센터 침출수 이송 금지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월정리 마을회는 “오

지사는 면담 초반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증설공사 강행을 마음먹고 온 도청이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월정리를 방문했다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도청은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며 “월정리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1987년부터 분노처리시설 반대 투쟁을 했고, 35년 후인 지금도 하고 있으며 우리 자손들도 이어서 투쟁하지 않도록 증설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정리 마을회는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단순 남비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월정리민의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세계유산법을 준수하고, 고향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다는 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수련꽃속에 파묻힌 꿀벌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한 연못에 활짝 핀 수련에 꿀벌이 찾아와 꿀을 먹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코로나 확진자 한달새 5배 늘었다

### 24일 기준 7월 1만9746명... 6월 한달은 총 4049명 감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5만8995명으로 늘었다. 이중 격리환자는 9507명, 사망자는 185명이다. 제주지역 월별 확진자는 1월 846명, 2월 2만6461명, 3월 13만6155

명, 4월 5만4814명, 5월 1만2263명, 6월 4049명, 7월 1만9746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유행에 대비해 지난 22일 도내 의료기관장들과 고위험군 중증화와 사망 최소화 방안, 의료체계 정비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의료기관장들은 제주도가

전국 대비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백신접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원스톱 진료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흡기질환치료 의원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지정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고대리기자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향방은...

### 전국 사학단체 법제화에 반발... 효력정지 가져분신청 도교육청, 1차 5배수 선발 등 사학 협의 속 3년간 확대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확대 시행해온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회가 효력정지 가져분신청을 내면서다.

도교육청의 재정결합보조금을 받고 있는 도내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확대는 2019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취지로 2020학년도부터 원하는 사립학교에 한해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필기)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6개 중·고교(16명)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이 같은 위탁채용은 2021학년도 8개 학교 19명, 2022학년도 12개 학교 46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 시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맞춰 사립학교 재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교사 신규 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

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회는 지난 22일 위탁 채용 효력정지 가져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져분신청배경에 대해 “헌법소원 선고까지 시험 위탁 강제 조항으로 인해 사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걸맞은 교원을 채용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사립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법제화에 따라 2023학년도 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채용 목적인 건학 이념을 이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선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로사항을 청취했고 그 결과 1차에서 1.5배수, 2차에서 2배수까지 늘었다”며 “최근엔 일부 사학에서 1차 선발 인원을 3배수, 2배수로 추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모 학교에서는 2~3차를 포함 전면 위탁 의사까지 비쳤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 부산~제주 여객선 뉴스타호 고장

### 22~23일 미출항... 승객 수백명 불편 겪어

제주와 부산을 잇는 여객선이 고장으로 며칠째 출항하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여객선사 등에 따르면 여객선 뉴스타호(9997t)가 지난 22일 오후 승객 320여명을 태우고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선체 고장으로 출항하지 못하고 수리 또한 지연되면서 밤 늦게 결항을 결정했다. 이후 밤 사이 선박 점검과 수리 작업을 실시한 뒤 다음날 23일 오전 승객 230여명을 태우고 다시 출

항했지만 10여분 만에 기관 계통에 문제가 생겨 예연선에 의해 부산항으로 돌아온 뒤 이날 현재까지 수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은 승객들은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가거나 항공편을 이용해 다시 제주로 가는 등 수백 명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선사 측은 운임을 모두 환불하고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반직 6·7급 비율 상향 추진

제주도교육청의 6·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473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6급은 현행 274명에서 290명으로, 7급은 371명에서 404명으로 각각 늘린다. 5급은 현행 60명에서 64명으로 조정한다. 반면 8급은 현행 575명에서 522명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전선희기자

##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10회) 제주특별자치도 통일대장정

세계 160개국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실현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을 열자!

**일시·장소** 2022. 8. 2(화) 10:30~12:00, 제주벤처마루 10층

**주최**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주특별자치도회

**주관** 천주평화연합 (UPF) 제주도지부, 평화대사제주도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 통일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참여**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통일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천주평화연합(UPF) 제주도지부, 평화대사제주도협의회 (회장:문정수) 제주 산수원애국회(회장:고민립), 천주평화제주여성포럼 (회장:김신옥)

Middle East			America			Asia		
미국	멕시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타이완
일본	대한민국	북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네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네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대한민국	북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네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네팔

**상임고문:** 오연석, 신명수 지문위원: 고성철, 고용구, 고준영, 고태신, 김두연, 김병수, 김장관, 신방식, 오순옥, 이창수, 정옥자, 진종대, 한성울, 홍명규, 홍성보

애월읍 회장 강인중, 이진화	조천읍 회장 한석범, 부영자	구좌읍 회장 한대용, 부옥희	한경면 회장 김영소, 최순옥	이도1동 회장 한창수, 윤순복
추자면 회장 원운순, 박혜성	우도면 회장 고혜동	일도1동 회장 김재만, 박계량	일도2동 회장 오문호, 한원자	용담2동 회장 현태욱
이도2동 회장 김미순	삼도1동 회장 문영희, 고옥희	용담2동 회장 장계춘, 강숙자	용담1동 회장 송창홍	아라동 회장 전태욱, 고영순
건입동 회장 한계수, 임애자	화북동 회장 김진평, 김경생	삼양동 회장 김하중, 양혜숙	봉개동 회장 문용호, 안순자	이호동 회장 박상주
오라동 회장 김창규	연동 회장 조행수, 문봉순	노형동 회장 오용천, 정정순	외도동 회장 이광호, 이춘자	안덕면 회장 고상호, 박인애
도두동 회장 문정단	대정읍 회장 정문후, 임정순	성산읍 회장 강곡식, 정덕숙	성산읍 회장 강곡식, 정덕숙	천지동 회장 김봉수, 문정숙
표선면 회장 안계수, 강경화	송산동 회장 이근섭	정방동 회장 한태원, 허애선	중양동 회장 허충호, 강능자	대륜동 회장 고창두, 오신춘
효돈동 회장 권기홍, 강경자	영천동 회장 강치연, 윤정애	동홍동 회장 오순옥	서홍동 회장 고용길, 윤정열	
대천동 회장 백순오, 원금진	중문동 회장 오문석, 김금자	애래동 회장 강완준		

※ 초청된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피스로드 조직위원회 한국실행위원장 **송광석**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주특별자치도회 공동회장 **황치훈** 고민수 강창익